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NEWS

26 Wimbledon Drive, Roslyn, NY 11576

T: 516.655.0088

E-mail: severanceusa1@gmail.com

발행인: 허양옥 | 편집인: 박훈재

2022년 32 차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

2022년 11월3일(목) - 11월6일(일)
Royal Sonesta Houston Galleria, Houston, TX

2022

8

VOL.39 | NO.1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장 인사말

허양옥(74졸업)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장

세브란스 동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 동창동창들이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2년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은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다함께 겪었고 다행히도 Vaccine 의 발명과 보급으로 인하여 현재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난중에서도 우리의 삶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2019년 8월 Chicago 근교에서 가졌던 미주동창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 가지지 못했던 북미주 세브란스동창회 학술대회 및 재상봉행사를 올해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휴스턴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매년 북미주에서 학술대회와 재상봉행사를 합니까? 우리 선후배 친지들을 일년에 한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쁨도 물론 있지만, 우리 모교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격려를 보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 모교에 빛진자들입니다.

세브란스가 쉬지않고 임상과 기초의학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정진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의료원 소식을 통하여 접하는 무수히 많은 뛰어난 능력의 후배들을 볼때에 세브란스의 미래는 밝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창들 모두가 해야할 일은 모교를 염려하고 사랑하며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모교에서도 매년 미주동창회 모임에 한승경 총동창회장님, 윤동섭 의료원장님, 신촌, 원주의 학장님들을 비롯하여 의료원 그리고 학교 행정 책임자들께서 오셔서 학교와 의료원의 근황과 문제점, 미래 계획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재상봉행사 및 학술대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시작된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휴스턴에서 개최되는 제32차 학술대회 및 재상봉행사가 모두에게 의미있고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이곳 세브란스 동창회 회원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주제로 하여 각 계통의 동창들을 연사로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1990년도 이후 졸업 동창들의 참여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휴스턴은 Texas의 가장 큰 도시이며 의료, 문화, 예술, 건축 및 modern technology, media의 중심지로 손꼽을 수 있으며, 11월초는 휴스턴 연중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부디 많이들 오셔서 몇년만에 가지게 되는 세브란스인들의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휴스턴 학회 안내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가 11월의 첫째 주 11월 3일(목) 부터 11월 6일 (일)까지 휴스턴에 위치한 Royal Sonesta Hotel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모교에서는 총동창회 한승경 동창회장님, 이경식 전 세브란스 병원장님, 윤동섭 의료원장님 그리고 이은직 신입학장님과 정순희 원주대학장님 그외 모교에서 보직을 맡으신 여러분들이 참석하실 예정이고 또 미주지역에서는 이용해 (Dr. 송선규 기념 강연연사)동창을 위시하여 연사 여러분들 그리고 각 지역의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십니다.

미주 동창 여러분들께서는 3년 만에 함께하는 만남의 자리입니다.

휴스턴 동창회에서는 이번 재상봉 행사 및 학술대회를 위해 연사들 초청, 골프, 관광 및 유익하여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 하고 있고 즐거운 만남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동창들께서 미리 미리 계획을 하실수 있도록 호텔 예약과 항공편 안내를 아래와 같이드립니다.

1. 호텔예약 안내

호텔예약은 전화예약 그리고 온라인 예약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예약:

Royal Sonesta Hotel 예약과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약 전화번호는 855-463-3091 입니다. 전화를 하시고 기다리신후 에이전트가 나오면 Group Code: 110222YCMMAA 혹은 Group name "Yonsei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2022"를 주시면 Special rate \$149/per night으로 방을 예약하실수 있습니다.

온라인예약: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예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ook.passkey.com/e/50329673>

행사장에 며칠 일찍 오시거나 조금 늦게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 본 행사는 11/3 (목)-11/6(일) 까지이지만 행사 전, 후 3일간 같은 discounted group rate로 방을 예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방 종류는 1 King Bed 혹은 2 Queen Bed입니다. 예약 하실때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크인은 오후 3:00 PM이고 체크아웃은 12:00 정오가 되겠습니다. 호텔예약 Deadline은 10/13/2022 까지 입니다.

2. 공항 안내

공항은 두개가 있습니다. George Bush International Airport(IAH)와 Hobby Airport가 있습니다. 어느 공항을 사용해도 관계가 없으니 편하신 공항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George Bush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대략 30-40분 정도 거리이고 Hobby 공항에서는 대략 30분이 걸립니다. 교통 수단은 Uber(\$45-\$65)를 이용하시거나 taxi(약 \$75)를 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3. 관광 및 골프 안내

올해도 오전에 Half Day 골프 및 관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금요일 11월 4일 오전은 Hermann Park Golf Course(www.hermannparkgolf.com 2155 N. MacGregor Way, Houston, Texas 77030) 그리고 토요일 11월 5일 오전은 Sharpstown Golf Course (www.houstonmunicipalgolf.org 6600 Harbor Town Dr, Houston, TX 77036) 로 예약을 해 놓았습니다. 골프채는 rental이 불가능 합니다. 되도록 본인채를 가져 오시기 부탁드립니다.

관광은 점심과 버스를 제공하며 금요일 11월 4일은 휴스턴 City Tour를 계획하고 있고 둘째날 11월 5일 토요일은 Museum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 동기 모임

행사 첫날인 11월 3일 목요일 저녁에는 Welcoming Reception이 있고, 4일 금요일에는 각 동기회 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토요일 저녁에 Gala

Dinner로 참석하신 모든 동창께서 함께 모여 즐기는 시간을 갖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11월 4일 동기 모임을 위해서 식당예약이 필요하

시면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갖는 만남이라 더욱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하며 동창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허양옥 북미주 동창회장 및 휴스턴 동창회 일동

학회 기부금

1965	허일무	\$200
1969	박창조	\$500
1974	허양옥 북미주 동창회장	\$10,000

2022년 정기 이사회 및 재정위원회 모임 공고

2022년 세브란스 정기 이사회 및 재정위원회 모임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북미주 세브란스 동창회 고문, 이사, 전직 동창회장, 재정위원회 회원은 물론 관심 있으신 여러 동창들의 참석을 권장합니다.

이사회가 11월 3일 오후 4시에 시작하는 관계로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일찍 도착하시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장 소 : Royal Sonesta Houston Galleria, Houston, TX

일 시 : 2022년 11월 3일 (목) 오후 4시

The 32nd SAA Annual Meeting in Houston

Events and Activities

DAY 1 | THURSDAY, NOVEMBER 3, 2022

2:00 pm - 6:00 pm	Registration
4:00 pm - 5:30 pm	정기이사회, 재정위원회 및 세브란스 재단 활동 보고
6:00 pm - 10:00 pm	Welcome Reception

DAY 2 | FRIDAY, NOVEMBER 4, 2022

8:00 am - 12:30 pm	Golf at Hermann Park Golf Course (Green Fee, 점심 및 교통편 포함)
8:30 am - 1:00 pm	Houston City Tour (점심 및 교통편 포함)
2:00 pm - 6:00 pm	Scientific Program Dr. In-Bae Yoon Memorial Lecture: Kyong Sik Lee, MD ('61) “The progress and drawbacks in surgical training and practice in Korea; The impact by modern technology and the cultural changes”
2:00 pm - 5:00 pm	non-CME Program (TBD)
6:00 pm - 9:30 pm	동기모임

DAY 3 | SATURDAY, NOVEMBER 5, 2022

8:00 am - 12:30 pm	Golf at Sharpstown Golf Course (Green Fee, 점심 및 교통편 포함)
8:30 am - 1:00 pm	Tour: Museum (점심 및 교통편 포함)
2:00 pm - 6:00 pm	Scientific Program Dr. Sun Kyu Song Memorial Lecture: Yong Hae Lee, MD ('61) “Medicine and Liberal Arts”
2:00 pm - 5:00 pm	non-CME Program (TBD)
5:50 pm	Group Picture
6:00 pm - 7:00 pm	Cocktail & Reception
7:00 pm - 10:30 pm	32nd Annual Gala Dinner, Awards Night

DAY 4 | SUNDAY, NOVEMBER 6, 2022

9:00 am - 10:30 am	Sunday Worship Service
--------------------	------------------------

The 32nd SAA Annual Meeting in Houston

Scientific Program & Faculty

“Successful Aging Revisited #4”

Sun Oak Choi, MD ('64)

Private Practice of General Psychiatry
Inpatient Director of the Psychiatric Unit at St. James Hospital
Assistant professor of Psychiatry, Chicago Osteopathic Medical School
Now Retired

“Why So Many Koreans Have A.D.H.D?”

Young K. Susan Chung, MD ('70)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st
Korean American Counseling Center(KFAM)
Retiree, Clinical Professorship of Univ. of Southern California

“Recent Updates of Robotic Surgery in Urology”

Woong Kyu Han, MD, PhD ('97)

Professor, Department of Ur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irector, Office of Fundraising Affairs
Director of Uro-oncological Center in Yonsei Cancer Hospital
Director of Board Examination Committee,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KUA)

“Winter Skincare”

Young Chai Kauh, MD ('61)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Dermatolog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Sydney Kimmel Medical College

“Spinal Disease, Biomechanics, and Prevention”

Sung Uk Kuh, MD, PhD ('92)

Professor, Spinal Neurosurgery
Director, Division of External Affairs and Development, YUHS
Head, Department of Medical Device Engineering and Management
Head, Department of Integrative Medicine, Yonsei University Medical College

“Cancer Immunotherapy Update”

Duckjoo Lee MD, MPH, PhD ('85)

Vice Chairman, GC CELL, Inc.
Adjunct Prof. Medicine, Yonsei Univ. School of Medicine
Adjunct Prof. Medicine. Ajou Univ. School of Medicine
Senior Advisor,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Oncology
Executive director; Policy & Regulations, Council for 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Precision Cancer Immunotherapy”

Hyun-Sung Lee, MD, PhD ('96)

Assistant Professor of Surgery
Director, Systems Onco-Immunology Laboratory
David J. Sugarbaker Division of Thoracic Surgery
Michael E. DeBakey Department of Surgery
Baylor College of Medicine

“The progress and drawbacks in surgical training and practice in Korea; The impact by modern technology and the cultural changes”

Kyong Sik Lee, MD ('61)

Chairman of Dr. Myung Sun Kim Foundation
Former President of Severance Hospital

“Medicine and Liberal Arts”

Yong Hae Lee, MD, FACS ('61)

Former Professor Myung Ji University
Former Professor Kon Yang University

“Medical Mission and Severance: Updates and the Future Direction”

Chin Yong Pak, MD ('84)

Director, Medical Mission Center
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Humanities and Social Medicine

세브란스 재단의 필요성

이배웅 (62졸업) 세브란스 재단 위원장

세브란스 재단은 수년전 동창회 안에서 절세의 혜택을 받으며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모교를 후원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이 되었고 2019년 이사회를 통해서 동창회 Financial Committee 안에 Subcommittee로 “Severance Medical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 즉 세브란스 재단로 명명되어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많은 동창들의 참여로 해마다 커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세브란스 재단을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재단의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과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떠한 일을 해 왔는지 동창들께 보고드리려 합니다.

우선 재단을 통해서 모교에 기부 하는 것에 대한 특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드리자면 첫째로 재단의 자금은 세금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재단을 통해 모교 발전기금을 보내실때 후원금은 모두 세금공제를 받으며 즉시 모교에 기부 소식을 알리고 의료원 소식지에 싣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동창회 임원들이 Volunteer로 도와주고 있어서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고 다른 투자기관처럼 일정한 액수 또는 percentage로 떼어가거나 Commission이라 하는 비용이 따로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금을 불리는데는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기관에 돈을 맡기면 투자 이익의 몇십프로를 떼어가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비용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지요.

제가 2000년부터 재산을 사회 환원하고 사회에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위에 같은 생각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재단을 설립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조언을 받아서 “Lee & Yum Foundation”을 설립했습니다. 그동안 20년이 넘게 지나고 다행히도 investment가 잘 되어서 2017년에는 동창회에도 이런 재단을 만들어 키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2017년에 동창회에

건의를 하고 2018년에 이사회 동의 거쳐 2019년에 정식으로 “Severance Medical Foundation Investment Committee”라는 이름으로 동창회안에 세브란스 재단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세브란스 재단에 많은 동창들이 참여하고 또 운영이 잘 되어서 현재 재단에 기금이 1백만불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투자 방법은 내 개인이 아니고 세브란스 재단이라는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을 사거나 팔 때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ETF(Extended Trade Fund)를 주로 이용하고 있고 우리가 거래하는 기관은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중 하나인 Vanguard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교 의과대학의 신축 부지도 결정되었고 이제는 자금을 모교에 기부하는 일을 시작 할것인데 재단으로 기부한 기금들은 designate한 목적이 있을 경우는 그목적에 위해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명시 하지 않으시고 그냥 재단에 기부한 기금은 우리 동창회에서 그리고 모교와 상의해서 모교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사용할수 있도록 기부를 하려하고 있고 모교에 전달 할때 다시 기부하신 개인 이름과 투자 액수를 함께 알려주어서 기부자의 이름을 다시금 알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는 재단을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기를 바라며 혹시 서울에서 미국 주식 투자 하는 길이 열린다면 모교에서도 세브란스 재단을 통해서 투자를 할수 있는 좋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Chair, Lee & Yum Foundation 현재 40 mil.
Board of Director, Binghamton University foundation.
Board of Director, United Health Service Foundation

2021 세브란스 재단

1957	정주실	\$1,000
1961	김영경	\$500
1965	김용서	\$1,000
1967	김덕진	\$10,001
1967	방계현	\$500
1969	김광옥	\$500

1969	김천수	\$2,000
1969	노명재	\$200
1970	김영숙	\$1,000
1970	오흥길	\$250
1971	윤도근	\$1,000
1975	한승수	\$500
1976	이준호	\$250

2022 세브란스 재단

1960	심낙광	\$1,000
1969	송정자(Mrs. 이두광)	\$30,000
1969	연규호	\$1,000

텍사스에서 있었던 추억들

최병일 (65 졸업)

연례 동창회에서 학술대회까지 거행하는 학교는 아마도 이 세상에 우리학교 밖에 없다고 자부한다. 매년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동창들에게 감사드린다.

더우기 금년 가을 동창회가 텍사스 휴스톤에서 열린다니 많이 기대된다. 사실 텍사스는 나에게 많은 것을 배풀어 준 곳이다. 너그럽고 풍요로운 텍사스... 무한이 펼쳐지는 초원... 당장 카우보이가 나타나 소떼를 몰고 갈듯한 곳... 여기 저기 꽃혀있는 오일 펌프들...

내가 텍사스와 인연을 맺은 것은 1968년 여름으로 올라간다. 뉴욕 다운스테이트의 전신인 롱아일랜드 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 과정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뉴욕에 오신 모교 생리학 교수 고 홍석기 선생님께서 당시 하와이 대학에서 해양연구를 하시던 시절 친히 찾아 주셨고 휴스톤 베일러 대학에서 현대장비를 이용한 고전 생리 연구코스를 소개해 주셨다.

당시 NASA에서는 소련과의 우주 경쟁이 치열했던 시절 달나라에 사람을 보내기 일년 전이었다.

심장 리듬의 모니터나 혈압측정을 전자기기를 이용하기 시작하던 시절... 병원의 CCU가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다.

전자공학에는 문외한이 었던 나는 과장선생을 찾아가 두달 휴가를 신청했고 코스 선택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John Edson 교수님에게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감사를 드리고싶다.

베일러 의대에서의 2개월은 나의 진로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전자 공학에 문외한 이었던 나는 반도체 이론과 실습 등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다. 매일 시행된 개의 심전도와 혈류의 상관관계, 이를 측정하는 증폭기와 휘스톤 브릿지 이용한 혈압측정 등 고급 생리 실험을 통한 지식은 지금도 학생들에게 인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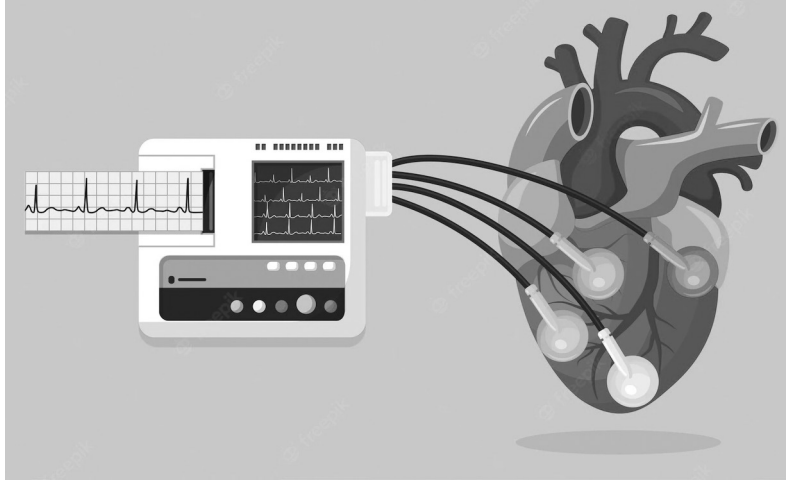
당시 NASA의 달나라 착륙 계획으로 이러한 실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근래에 생리실험이 없어진 의학교육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스케일이 큰 텍사스에서는 생리실험도 살아있는 말의 생체실험과 심전도를 이용한 바로리셉터의 반응실험은 텍사스만이 할 수 있는 발상이 아닐까? 심전도의 분석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전자생리 측정기로 심근의 수축 이완기전 연구는 훗날 전기생리를 연구하는데 초석이 되기도 한다.

사실 나는 심장 임상 의사이지만 학생들이나 레지던트들과 케이스를 의논할 때 기초인 해부 생리 병리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기본을 이곳에서 배운것 같다.

역사를 뒤돌아 보면 컴퓨터의 획기적 발전과 생명공학의 기하학적 발전이 NASA 계획의 결과인 것을 생각하면 텍사스 출신 대통령 Johnson의 실질적 공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일이다.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던 중 텍사스의 작은 마을 엘도라도에서 의사를 구한다는 연락이왔다. 인구 3,000 밖에 안되는 목장과 농장들로 된 카운티인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



하는 의사가 휴가로 없어진다.

카운티 병원의 사정이 딱하고 아들도 교육시킬 겸 2주간 휴가를 내어 그곳의 봉사를 자청했다. 그곳 신문에는 의과대학 교수가 군민을 치료하러 온다는 뉴스와 함께 나를 환영해 주었다. 매일 오는 환자들은 도시에서 보는 환자가 아니다.

크리스마스 오후 점심을 먹으려 한 30분을 달려 식당으로 가는 도중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따라오며 정지 신호를 보내오는 것이 아닌가? 속도 위반도 아닌데... 경찰이 다가오기에 나는 카운티 병원 의사이고 아들과 함께 점심 먹으러 가는 길이라 설명하니 자기도 안다는 것이 아닌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병원을 비운동안 응급환자가 생겨 모시러 왔다는 것이다.

환자는 8세정도의 소년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비비총으로 변전소 철조망 위에 앉아있던 참새를 쏘았는데 적중된후 변전소 안으로 떨어진 새를 갖으려 철조망을 넘어 가다가 3000볼트의 전류에 감전되어 오른손부터 삼도 화상이 오른쪽 다리까지 퍼져 통증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다행히 airway는 intact... IV를 시작, 물핀 주사를 주고 일차 화상 드레싱을 한후 San Antonio Burn Center에

전화하니 30분내로 헬기가 도착,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환자... 그후로 매년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 마을을 찾았다.

이를 지켜본 아들은 생명을 구하려 노력하는 시골 구석의 의사 활동에 감명 받았다는 이야기로 십여곳 의대에서 입학통지를 받았다. 물론 그 시골 의사가 아버지였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믿는다. 후담으로 그 소년은 수년간의 피부이식으로 살아서 돌아 왔다고 전해 들었다.

병원에서는 비싼 아들의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불하여 월급쟁이 아버지도 큰 도움을 받은셈이다. 아들은 그로부터 30년후 지금 워싱턴의 모 대학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나와 텍사스의 인연은 한편의 드라마와 같다.

젊었던 시절의 학문적 낭만이 있었던곳... 무한한 지평선을 바라보며 말을 달리고 싶은 목장들... 지금은 무척 변해 있을 것 같은 휴스턴...

이곳에서 옛 친구들을 만난다니... 벌써 가슴이 벅차온다.

피부관리

서영심(Mrs. 서세모 54 졸업)

대부분의 여성들은 나이가 들수록 주름없고 탄력성 많은 하얀 피부를 갖기 원합니다.

하와이 같이 자외선이 강한 기후에 늘 접하다 보니 일부러 썬텐을 안하고 또 걸을 때도 그늘을 골라가며 걷고 나름대로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 같은데도 해 넘어 그림자가 지기 전까지는 어쩔수 없이 자연스럽게 햇빛에 노출이 되어 언제 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거무스레한 하와이언 피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저는 골프도 안치고 특별히 야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다 보니 그래도 아주 하와이언의 거무퍽퍽한 피부에서는 벗어나서 많은 분들이 저보고 피부과 어떻게 그렇게 곱냐, 희냐 하는 말을 자주 듣는 편입니다.

최근 팬데믹으로 2년간 모이지 못했지만 일년에 한번씩 미주에 계신 연세 의과대학 졸업 동창들의 재상봉 행사 및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회장님 선출 되는 지역에서 행사, 동창회 모임을 갖다 보니 Los Angeles, New York, Chicago, Atlanta, Las Vegas 그리고 Houston 등등 자연히 많은 곳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2007년 하와이에서 재상봉 행사를 했을 당시는 크루즈를 타고 하와이의 이웃 섬들을 일주했고, 이곳 하와이는 여행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는 곳이고 또 골프 치기에도 좋다고 하여 많은 동창 그리고 가족들이 참석을 하는 바람에 참석 인원이 380명이나 되는 가장 큰 모임중에 하나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배 안에서 학술 대회를 하면서 동창들이 새로운 연구 발표를 하며 많은 지식들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동안 배우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아서 각자가 듣고 싶은 재미있는 강의를 들을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한 20년전 뉴욕에서 있었던 미주 동창회 미팅에서 “여성들의 피부관리”라는 강의제목이 눈에 띄어 일찌감치 등록을 했습니다. 피부과 교수

님은 여자 분이셨는데 정말 그때 봐어도 피부가 유리알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분은 강의에 참석한 여성분들께 10개의 퀴즈가 있는 마치 시험지 같은 종이를 한장씩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1번, 비싼 유명 메이커의 Night Cream은 효과가 좋다. 옆에는 예, 아니오로 답을 고르는 선택 문제였습니다.

2번, 프랑스제 제일 비싼 화장품은 역시 효능이 좋다, Yes or No.

그 10개의 문제 중에 하나가 햇볕 차단제(sun screen)는 발라도 되고 안발라도 된다. 예, 아니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낮에 바르는 크림 그리고 파운데이션에 조금씩 햇볕 차단제 즉 sun screen이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sun screen을 바르지 않아도 된다, 예, 아니오, 등등의 문제였습니다.

참석한 부인들은 마치 학교 다니는 수험생들 못지 않게 부지런히 예 (Yes), 아니오(No)를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체크하여 드디어 얼마나 맞추었나, 과연 몇점이나 될까 하며 선생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번 질문, 새로 나오는 비싼 유명메이커 화장품은 싸고 오래 사용되고 있는 화장품 보다 월등하다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 비싸고 유명 메이커의 화장품이 좋습니다에 “예”라고 표시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2, 3, 4번 문제로 계속 내려 가는데 우리 수험생의 대답은 실망스럽게도 거의 다 선생님의 답과는 반대였습니다.

아주 비싼, 유명한 백화점에서 새로 나오는 화장품들 특별히 Made in France 제품에 “네” 그리고 효과가 비싼만큼 역시 얼굴에 광채가 나며 효능이 월등하다고 믿고 있었기에 다 “네” 라고 답을 했는데 대부분 우리 부인들, 수험생의 답안지는 30점, 40점 미만이었습니다.

며칠전 마침 "아침마당"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서울대학교 피부과에 여교수님의 "피부관리"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전 열심히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년전 뉴욕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미팅에서의 피부과 의사 강연과 20년 후인 며칠전 피부과 교수의 강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하나 다른것을 지적하라면 20년 전은 의사 부인들을 위한 강의니까 같은 내용을 쉽게, 퀴즈로 이야기 했고 며칠전의 피부과 교수님은 좀 전문적인 내용을 전문가답게 하신 것이 다른 점이라고 굳이 지적하라면 다른 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강의 내용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교수분이 강의하신 내용은 "햇볕 차단제 즉 sun screen로션"을 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몇백불씩 하는 night cream이나 drug store에서 쉽게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night cream이나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세일을 열심히 기다렸다가 비싼 화장품을 사 쓰시는 분들 조금 실망되지요? 저는 20년 전 강의를 듣고 나서는 정말이지 열심히 sun screen로션을 바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될 때에도 sun screen만큼은 하루도 바르지 않는 날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열심히 바르고 있는데 아마 그래서 인지 제가 요즘 피부가 좋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은 저를 잘 알지만 전 비싼 화장품을 거의 안쓰고 꾸준히 sun screen로션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 피부과 교수 말씀이 로션이나 파운데이션에 sun screen이 조금 포함되어 있다고 써 있어도 그것 같고는 충분치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지 않는 날도 햇빛이 집안에 있는 유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집안에 있는 형광등에도 햇빛과 같이 얼굴을 검게 하는 빛이 발사 하기 때문에 집에서 가급적이면

sun screen 로션을 바르는 것이 피부를 보호하는데는 꼭 필요하고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도 sun screen으로 피부를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특히 밖에서 햇빛에 노출되어 농사 짓던 분들 얼굴에, 주름이 가늘고 예쁘다기 보다는 굵은 골창이가 파이는 주름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50년 전 아이들을 기를 때만 해도 sun screen 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아마 있었는데 그런데 원채 둔한 제가 몰랐을 지도 모르지요.

친구와 둘이서 아이들 나이가 같아 테니스나 Body Surf나 하며 대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밖에서 지내면서도 그친구나 나나 sun screen 도 없이 뽕뽕에 있다보니 전 온통 얼굴에 기미로 덮여 있었죠. 하와이는 바다가 햇빛을 반사해서 비

치에 있을때는 더 많이 바르랍니다. 요즘 저를 보시는 분들은 믿어 지지 않을실 것예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구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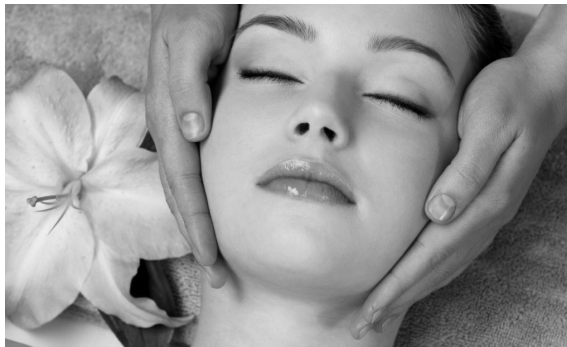
20년전 피부과 교수님의 강의를 들은 후 Sun Screen 로션을 365일 하루도 빼 놓지 않고 바르는 것이 비법이라고나 할까요?

두 피부과 교수님들의 강조한 점 바로 sun screen을 지금 부터라도 꼭 바르세요. 365일. Lotion 이나 파운데이션에 들어 있는 것 같고는 충분치 않습니다. 당장 따로 sun screen을 따로 사용하시는 것을 시작 하세요. 그리고 강한 햇볕을 이기시고 뽕뽕고 젊은 피부를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하와이에 40년을 살아오신 고 서세모 (54년 졸업) 동창의 wife 서영심 여사는 2022년 새해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라디오 서울 하와이를 통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방송 칼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검색창(Search)에서 "서영심의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검색해 보시면 그동안의 방송을 다 찾아보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 서영심 여사의 재미있는 생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동창동정 및 지역소식 | alumni news

남가주 지역 소식

■ 이석완 동창회장 인사



연세의대 남가주 동창회 모든 회원님들, 배우자님들 그리고 가족 되시는 여러분들께 2022년에 봉사를 맡은 “67년 졸업 이석완”이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남가주 동창회가 회원님들을 위한, 모든 회원님들이 참가하는 그리고 회원님들에 의해 이끌리는 한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 고맙게도 안상선님, 김형철님 그리고 황인용님께서 쾌히 승락하시어 저와 함께 실무위원으로 봉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전 회장님들 중에 김영숙님, 이상준님, 류지선님, 원종만님께서 자문위원으로 우리 실무위원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이번 첫 Newsletter 로부터 수시로 회원님들과 소통하여서 더욱 화목하고 유익한 동창회가 될수 있기를 바라며 끊임 없이 노력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청하겠습니다오니 말씀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무위원

회장: 이석완 (67졸업)

총무: 안상선 (72 졸업)

홍보: 김형철 (73졸업)

서기: 황인용 (08졸업)

연세의대 남가주 공식 이메일 :

scalsaa@gmail.com

■ 안상선 총무 겸 회계 인사

사랑하는 세브란스 연세의대 선후배님들께!



은퇴 후 이곳 남가주에 등지를 뜬 지도 벌써 십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과 소식을 전할 때면 의례히 그곳 생활이 지낼 만 하냐고 묻습니다. 온화한 사계절 기후가 좋

겠고 자식들이 가까이 사니 손자 손녀들과 쉽게 만날 수 있어 좋겠구나 하고 부러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 속엔 오랜 떠돌이 미국 생활을 뒤로 하고 여기 사는 선후배님들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나의 정체성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소속감을 느끼며 살 수 있는 요즘의 하루하루에 갑자기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선배님 한분 한분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본의 낭비도 없이 열심히 살아오신 모습을 접하면서 무한한 존경과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동창회를 통해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려왔던 우리의 삶에 조금은 평온하고 여유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로 시작하신 이석완 남가주 동창회장과 전 미주 동창회장단의 협조로 지금까지 개인구좌였던 이곳 동창회 재정을 전 미주 동창회 산하 Branch로 변형했습니다.

금년부터 남가주 동창회를 위해 쓰실 경비나 재정 후원금은 세금 공제의 혜택을 받게 되며 \$100 이상은 세금 공제 첨부 증명 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창회와 소원했던 회원분들께 대화와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세브란스 남가주 지역 골프 대회가 9월 21일 Strawberry Farms Golf Club에서 열립니다. 티오프는 오전 11시에 시작되겠고 골프모임 참가비는 \$100/person (점심, 상품 포함) 입니다. 행사 당일 Cash나 Check으로 지불하셔도 되고, 미리 내실 분은 우편 주소 “Sang Sun Ahn, 189 Salmon, Irvine, CA 92618”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 대회가 끝난 후 식사는 Strawberry Farm Gold Club Farmhouse Grill에서 시상식과 함께 남가주 동창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대회에 참석을 안하시는 동창들도 저녁모임에 참석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녁모임은 참가비가 없이 참석자 전원 무료입니다.

날 짜 : 2021년 9월 21일
장 소 : Strawberry Farms Golf Club
11 Strawberry Farm Rd,
Irvine, CA 92612
Tee off: 오전 11시
Dinner: Strawberry Farm Gold Club
Farmhouse Grill
연락처: 김형철 (73졸업 Tel. 410-802-5655)

시카고 소식



6/25/2022 at Twin Dragon Chinese Restaurant



뉴욕/뉴저지 소식

뉴욕, 뉴저지 동창회(회장 이준호 76졸업) 동창회는 지난 6월 6일 월요일에 뉴저지 Englewood Cliff에 위치한 Lefkes Estiatorio 식당에서 2022년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겨울동안 Florida로 내려가셨던 동창들께서 봄이 되면서 뉴욕, 뉴저지의 보금자리로 올라오셔서 오랜만에 선,후배님들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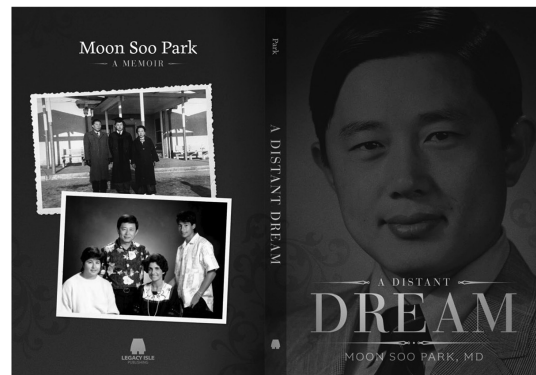
그동안 필라델피아 동창회장을 맡아 주셨던 이천각 (65졸)동창께서 개인적인 이유로 회장직을 지난 3월에 사임하셨기에 필라델피아 동창회법에 따라서 정환순 (66졸업) 동창께서 회장직을 맡아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동창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지만 기회가 되면 곧 만남의 기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총무는 변함없이 김종태 (82졸)동창이 만년 총무를 맡아 수고 하시겠습니다.

하와이 소식

■ 박문수 동창 자서전 출간

멀리 하와이에 사시는 박문수 (65졸업) 동창께서 “A Distant Dream”이란 제목으로 자서전을 출간 하셨습니다.

영문으로 출간한 자서전은 박동창께서 동창회에 기증하셨고 관심있으신 분들은 동창회 사무실 (Email: severanceusa1@gmail.com)로 연락주시면 자서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공격 위험 있는 환자는 항상 주변에 있다"

김영숙(Susan Chung 70졸업)
조만철(70졸업)

망상증 환자는 공격성 강해 조울증으로 인한 망상병은 좋은 약 많아 상태 호전 가능

한국에서 한 정신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로 부터 공격을 받아 안타깝게 목숨을 잃어 충격을 주었다. 이곳 미국에서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정신과 전문의(임상 심리상담가 포함)들은 안전한가? 수잔 정 · 조만철 정신과 전문의에게 '신변 위협을 받은 적은 없는지' '정신과 의사들의 안전을 위한 시스템은 되어 있는지' 등을 물어 보았다.

- 한국에서 의사가 정신질환자에게 피습당해 목숨을 잃은 일은 처음이라 한다. 미국은 어떤가.

(조만철 · 수잔정)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한국은 총이 아닌 다른 위험 도구를 사용하지만 미국은 총을 소지할 수 있어 더 위험하다. 불행 중 다행이 의사를 공격하는 일은 일반 직장 등 사회 전반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적으로 적고 또 목숨을 잃는 케이스는 많지 않다. 아직까지 치료하는 의사를 공격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안전지대는 아니다."

- 두 분 다 임상경력이 46년이다. 정신병 환자에게 신체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나.

(조) "여기가 아닌 병원에서 일할 때 30대 후반의 정신분열증이 있는 백인여성 환자가 입원병동에서 다른 환자와 다툼이 벌어져서 말리는 과정에서 나의 팔을 물어 피가 났다. 그 여성이 에이즈

환자란 것을 알고 나의 충격은 더 심했다. 가슴 졸이며 피검사를 수차례 했다. 다행히 감염되지는 않았다. 꼭 목숨을 잃지 않아도 이처럼 다른 신체적 피해와 특히 충격은 아직도 남아 있다."

(정) "뉴욕 병원에서 일할 때 야간 근무 중인데 마약 중독 환자가 무리한 요구를 해서 안 된다고 말한 다음에 돌아서서 전화를 받고 있는 순간에 등 뒤에서 공격해 입원 치료를 한동안 받았다. 한국 기사를 봤을 때 그 때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을 보니 아직도 놀란 것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은 모양이다."

- 정신과 의료진들이 환자 공격을 받는 일이 실제로 많이 발생하나.

(정) "지금 있는 카이저 병원에서 동료 의사가 최근에도 환자에게 공격을 받았다.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발생되고 있다. 몇 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정신과 여의사가 걸어가는데 입원 환자가 뒤에서 공격해 목숨을 잃었다. 남의 일이 사실 아니다."

(조)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으로 상담 중에 갑자기 의사를 얼굴로 치는 경우도 있다. 항상 위험성이 있다."

- 의료진을 보호하는 시스템이나 특별 시설이 얼마나 되어 있나.

(조) "나처럼 개인 사무실에서 환자를 보는 경우는 건물에 상주하는 시큐리티 가드를 전화로 부르



는 방법 밖에는 특별한 시스템이 없다. 의사 스스로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고 큰 병원으로 보냄으로써 의사 스스로 예비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별다른 방도는 없다."

(정) "내가 일하는 곳이 바로 '큰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한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병원 자체에서 정신과 전문의들의 신변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개인 사무실보다 잘 되어 있다. 폭력성이 있는 환자를 진료할 때에는 시큐리티 가드를 미리 불러 옆에 있게 한다. 돌발적인 응급상황일 때는 비상벨이 있어 곧바로 달려 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정신과 의사들은 자신의 책상을 환자보다 출입문에 더 가깝게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위험하다 싶을 때 환자보다 빨리 밖으로 피할 수 있기 위해서이다."

- 관공서처럼 위험한 총기등의 소지품을 스크린하는 시스템은 없다.

(정) "지금 우리 병원에서 정신과의사들이 그 문제를 계속 논의 중인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치료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와 환자는 서로의 신뢰가 중요한데 소지품검사대를 설치할 경우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정신과의사들이 의사가운을 입지 않는 것도 환자들이 예민해서 이질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주로 어떤 환자들이 의사를 공격하나.

(정) "정신증이라는 것은 자신이 느끼는 것과 실재를 분간하지 못하는 걸 말한다. 공격성을 갖는 정신증에는 망상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피해망상증상이다. 이같은 증상을 유발시키는 정신질환에는 피해망상병을 비롯해서 정신분열로 오는 피해망상증, 조울증에서 동반되는 피해망상증이 대표적이다. 또 조울증 자체가 심할 때에도 피해망상증이 온다. 이외에 마약과 같은 약물도 피해망상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치매,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등) 피해망상증이 올 수 있다."

(조) "피해망상증은 환청이나 환시도 일으킬 수 있는데 '저 놈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의 머리에 독약을 넣었다' 등과 같이 실재가 아닌 것을 극도의 공포로 받아들여 그 대상을 없애려고 시도한다. 자신이 낳은 아기를 죽이는 것도 '마귀가 아이로 둔갑했기 때문에 죽여야 아기가 살아난다'며 이를 행동에 옮긴다. 이것이 피해망상증이다."

- 예방 방법은 없다.

(정) "피해망상증은 특히 조울증으로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조울증은 요즘은 좋은 약이 많이 나

와서 쉽게 고칠 수 있는 정신질환의 하나가 되었다.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진단이 내려지면 치료를 잘 받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피해망상증은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유명한 교수나 학자 중에는 조울증을 치료하여 각 분야에서 잘 활동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 이번 사례도 환자가 조울증을 앓았다. 치료를 꾸준히 받았다면 '내 머리에 폭탄이 들어 있다'는 피해망상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 조울증 진단은 어떻게 내리나.

(정) "진단이 힘든 정신병의 하나라 수년전 만해도 네 명의 정신과 의사 진단이 필요했다. 물론 지금은 아니다. 만일 그 사람이 평생동안 한번이라도 난폭한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조울증으로 진단한다. 가족력도 큰 영향을 미친다. 만일 가족 중에 자살(자살시도)을 했거나 술이나 마약 중독자가 있거나 무리한 사업을 벌여 큰 실패를 한 사람이 있거나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 된 사람이 있다면 가족력을 의심해 볼 수 있다."

- 이번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

(조)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한 사람으로서 남의 일 같지 않다. 그리고 환자를 고치지 못한 책임은 의료진 뿐 아니라 사회가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미국도 같다. 병원에 강제

입원했다가도 일단 위험성이 없어 보이면 치료가 안된 상태에서 퇴원시킨다. 상태가 악화되는 건 볼 보듯 뻔하다. 이런 환자에게는 강제 외래 치료와 같은 법적인 시스템으로 계속 치료받게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법적인 조치가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계속 발생 될 수 있다."

(정) "두뇌도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증상을 잘 모른다.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는 더 모르고 있다. 미국보다 한국이 더 부족하지 않나 싶다. 거듭 말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조울증으로 동반되는 피해망상증은 얼마든지 좋은 약으로 상태를 호전시켜 이같은 참사까지 몰고 가지 않아도 되었는데 안타깝다. 이 사건을 계기로 지금 조울증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싶다."

편집자주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또 최근에는 뉴욕의 출근길 지하철역에서 문지마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조만철(70 졸) 동창과 김영숙(70 졸) 동창의 과거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옮겨 놓았습니다.

부고

유가족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세욱(57졸업) 동창 - 8/1/2022

조삼경(54졸업) 동창 - 7/28/2022

정성수(71졸업) 동창 - 7/13/2022

이용범(60졸업) 동창 - 7/13/2022

김태홍(60졸업) 동창 - 6/15/2022

이명상(65졸업) 동창 - 6/1/2022

이영빈(61졸업) 동창 - 4/14/2022

송희만 (68졸업)동창 - 4/1/2022

박문재 (60졸업) 동창 - 1/16/2022

무책임한 기억력

이용해 (61졸업)

인간의 기억력은 무책임합니다.

아침에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 동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모인 사람들의 반응은 모두 달랐습니다. 예배를 보고 나온 지 20분도 안되었는데...

나는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제 저녁 모임에서 만나 인사하고서 악수하고 서로 이름을 가르쳐 주었는데 다음날 만나면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외과 의사는 수술하기 전날 수술 동의서를 받습니다. 수술동의서는 아주 작은 글씨로 두쪽이나 세쪽의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런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서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합병증 부작용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형외과에서는 수술자리에는 흉터가 생긴다는 내용이 반듯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환자들은 “어머, 흉터가 생겼네요”라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 상처는 좀 있다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희미해 질 것 입니다.”라고 설명해도 환자들은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흉터가 남지 않도록 섬세하게 봉합을 하고 상처가 잘 보이지 않게 절개를 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도 사람이고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하지 우리가 무슨 마술이나 성령의 손으로 수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술 전날 열심히 설명해 주어도 자기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입니다.

수술 후에 의료사고로 분쟁이 났을 때 의사가 아무리 수술 전 설명을 했다고 하고 수술 동의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도 환자는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고집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수술 동의서에는 증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

인의 기억력도 완전하지 않고 환자의 편을 들 때는 의사는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가끔 영화를 보면서 검사나 변호사들이 증인을 압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15년 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실 나는 한 달 전 어느날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5년 전 어느날 몇 시에 저 사람을 본 일이 있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저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라고 한다면 나는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억력도 무책임 할 것이고 나의 대답도 무책임 할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살인 현장의 증인이어서 나의 증언에 그의 생명이 달려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글썄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억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입었던 옷, 신었던 신발 주위의 환경을 모두 기억할 수 없을 것이고 반대 신문에서 그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너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할 것입니다.

나는 친구에서 돈을 꾸어주고 받지 못한 일도 있고 사업을 하자고 해서 돈을 주었다가 사기를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돈을 준 날이 어느날 몇시 였고 그 돈을 줄 때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증거 불충분으로 소송에서 이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사회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야단이고 그러한 그를 공직에서 끌어내라고 야단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무책임하니까요.

수구초심(首丘初心)

황영환(60졸업)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요즘에 자주 내 머리에 떠오른다. 여우가 죽게 되면 그 머리를 자기가 났던 굴이 있는 언덕(고향)으로 돌린다고 하는 뜻이다. 고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여우보다 우리 인간이 더한 것은 말할것도 없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객지로 돌아다니면서 보낸 나에게서는 고향이나 고향의 학교동창이라는 말이 어디서 들리게 되면 마음이 안쓰럽고 불현듯 향수에 젖는다.

내 고향 옥중, 덕천강의 푸르고 유유히 흐르는 물결과 구름에 덮혀져 있는 인자하고 정기찬 옥산의 산줄기 속에 기름진 땅으로 농사짓고 밭을 갈아서 배부르게 살던 나의 어린 시절, 꿈 많은 소년 시절, 체육시간이면 학교 운동장에 모여 마구 뛰던 나의 중학 동창들... 어찌 한시라도 잊으랴. 더욱이나 나의 사춘기의 낭만과 미래의 꿈과 희망을 일으켜 주고 끝끝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준 옥중중학은 나의 소년기의 요람지다.

2월이 되면 눈속에서 청신하게 피는 매화꽃이며, 4월이 되면 한길(학교앞 도로)양쪽에 화사하게 피는 벚꽃으로 나의 마음을 황홀하게 하던 나의 중학시절은 50여년전 나의 영원한 꿈을 잉태한 유원지기도 하다.

초등학교(국민학교-소학교, 의무교육)를 막 마치고 농사일을 도우고 있던 나에게 꿈같은 현실이 생겼다. “옥중에도 중학교가 생긴다” 뜻있는 시골 교육자들의 청원에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허가를 받은 것이다. 나는 이 소식을 나의 부모님께 전했고 교육열이 강하신 나의 부모님은 “때문은 헌바지를 팔아서라도 자식 교육은 시켜야 한다”는 그들의 결심으로 나는 얼마후 위아래로 검고 날씬한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되었다.

미국 조지아주의 자기 고향에서 땅콩 농업을 하던 지미카터가 4년간의 조지아 주지사를 마치고 그 짧은 정치경험으로 대통령으로 출마했을때 그

의 어머니는 낙방을 염려해서 “정치 경험이 별로 없는 내가 어떻게 대통령직을 갖겠는가?” 하니까 “정치를 오래했다고 좋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참신하고 지혜가 있는 순박한 농민이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어머니를 설득시켰고 농민과 토박이 사람들의 표를 얻어 그 당시 현직 대통령 포드를 물리치고 당선이 되었다.

순박하고 농민정책과 인권주의 정치를 했고, 세계 모든 나라에 처음으로 인권신장(Human Right)을 주장하는 대통령이 되었고, 그 당시 이북 김정일 정권과도 총칼없는 대화를 통해서 외교했다. 나는 이 카터 대통령을 존경한다.

옥중중학을 졸업한 후배들이 모두 진학해서 그들의 지식을 넓히고 개개인들의 자질을 덧붙여 우리나라의 각계각층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때마다 나는 흐뭇해한다. 모두가 농사를 짓는 농민의 자손들이고 든든하고, 지혜있고 새로우면서 잔재주를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세계는 걸으로는 변할지 몰라도 올바르게 참된 사람을 이 사회에 채우려고 하며 지혜있고 참신한 지도자를 바라는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나의 고향 후배를 사랑한다.

소련과 중국의 접경지대인 하바롭스크에 병든 사람을 돕기 위해 의료선교를 간 나의 대학 동창인 ‘I’ 군의 대담한 용기와 비전에 나는 감탄하며 존경한다.

몇년전에 본 미국 영화 ‘쉴더리스트’에서 2차대전때 독일의 나치정권이 폴란드를 점령했을 때 같은 나치정권 밑에서 사업을 하던 쉴더리는 폴란드의 유대인이 매일 학살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사업 재산 모두를 넣어서 유대인 1,200명을 학살장에서 구해내서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척하다가 나치군이 연합군에 항복하던 날 모두 자유롭게

(P19에 계속)

문재단 장학금 안내

기부자이신 문재현(72) 동창께서 미주 동창회 의 일원으로 미주 동창회 행사에 참석하시고 느끼신 바, 미주 동창회원 숫자가 점점 줄어가고 특히나 1975년 이후 미주 동창회 회원 의 참석자가 급격 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많이 걱정 되시어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단 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장학금을 미주 동창회에 기부하시고 문재단 장학금 을 만드시어 매년 5명의 동창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신 동창분들은 앞으로 미주 세브란스 동창회의 활동에 참여해주시기를 권장 하오며 또 한 이러한 기부정신을 이어받아 이를 기억하시고 다음에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후배들을 위해 다시 기부를 하실수 있는 전통을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 자격

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주 의과대학 졸업생
2. 미국에 의사로 영구 정착할 동창 (Absolute Requirement)
3. 미국에 인정 받은 연수 과정이 증명된 동창
4. 경제 사정이 힘든 동창
5. 서울, 원주 의과대학 학장 추천
6. 미국 동창회 이사회 추천
7. 미국 동창회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창

장학금 수혜 내용

첫해 연수과정에 경제적 도움을 위하여 일인당 \$10,000 지급

필요한 서류

1. 자기 소개서 - 한글
2. Curriculum Vitae
3. 추천서(학장)
4. 미국내 재직 증명서
5. 최근 세금보고 서류

(P18로부터 계속)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이야기에 감명 받았고 이 선들러를 나는 존경한다.

5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나의 중학 시절의 그 꿈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맴돌고 있으며 어쩌면 그것을 위해서 나는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 같다. 매화꽃이 다소곳이 피고 벚꽃이 가로에 화려하게 피면 나의 어린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낭만과 희망과 공부로 불살랐던 나의 고향 중학시절은 비록 나의 머리가 반백이 된 오늘에도 잊지 못하며 그것은 나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일 것이다.

필자 - 스프링필드, 미주리 거주

2021/22 모교 발전기금

2021 모교발전기금

의과대학 신축기금

1961	강석호	\$1,000
1961	고영재	\$500
1961	오성규	\$500
1961	윤경주(Mrs. 윤인배)	\$201,458
1961	지금호	\$10,000
1964	이봉식	\$100,321
1965	허일무	\$1,000
1966	김명호	\$2,000
1966	남송혜	\$100,000
1966	장덕규	\$1,000
1966	조동욱	\$1,000
1966	채만석	\$100,000
1966	최무길	\$1,000
1967	김덕진	\$1,000
1967	김태원	\$1,000
1969	박종관	\$10,000
1969	박준만	\$500
1969	박창조/탁관철	\$35,000
1971	김시영	\$100,000
1971	윤은주(Mrs. 윤경옥)	\$500
1972	안상선	\$500
1972	윤영주	\$10,000
1972	정인국	\$40,695
1973	정봉 (BRKB 375@\$243.15)	\$91,181
1975	한승수	\$100,000
1980	정치홍	\$2,000
1984	고봉석	\$1,000

의대 장학금

1965	김정규	\$500
1965	강행자	\$500

장학금

의대장학금

1951	장명환	\$107,437
1959	이창복	\$250
1960	김승억	\$250
1960	변희중	\$250
1963	김규환	\$3,500
1963	김명희	\$1,000
1964	최선옥	\$250
1965	강행자	\$500
1965	김정규	\$500
1965	박문수	\$10,000
1966	김택영	\$250
1967	김용중	\$150
1971	정성수	\$35,000
1972	설의철	\$1,000
1983	최달	\$500
	무기명	\$2,000

62년 동기장학금

1962	차진석	\$1,000
1962	전경수	\$1,000

후배사랑장학금

1960	변희중	\$250
1963	간정홍	\$500
1963	이성애	\$250
1965	박문수	\$10,000
1971	윤은주(Mrs. 윤경옥)	\$500
1982	고종헌	\$250
1987	정만길	\$5,000
2001	김대현	\$250
2001	정혜진	\$250
2001	홍지수	\$250

기타

장기이식센터 기금

1960	황영환	\$100,000
------	-----	-----------

방사선 중앙학과 기금

1971	유영우	\$100,000
------	-----	-----------

의료선교센터

1956	윤현영	\$100,000
------	-----	-----------

문장학금

1998	맹호영	\$1,000
------	-----	---------

홍석기-완기 박사 장학기금

1967	홍미화(Mrs. 홍완기)	\$3,000
------	---------------	---------

교육혁신기금

1955	홍준식	\$500
1966	이종무	\$2,000

연구혁신기금

1965	이충영	\$1,000
1967	이화무	\$10,000
1970	김장수	\$25,000

COVID-19 구호기금

1967	유영제	\$500
------	-----	-------

Dr. 마동명 Memorial Fund

1964	이승호	\$500
1967	정정택	\$500
1969	박창조	\$500

2022 모교발전기금

의과대학 신축기금

1961 윤경주(Mrs. 윤인배) \$200,078
 1961 이용해 \$10,000
 1969 박준만 \$250
 1973 정봉 \$96,051
 1974 원종만 \$10,000
 1983 고봉석 \$1,000
 St. Louis 동창회
 1955 정민 \$100
 1960 박득재 \$100
 1960 배상진 \$100
 1962 정갑은 \$100
 1963 간정홍 \$100
 1967 김덕진 \$100
 1968 송희만 \$100

1969 박종관 \$100
 1970 한상인 \$100
 1971 박태성 \$100

장학금

의대장학금

1964 박정호 \$1,000

후배사랑장학금

1965 박문수 \$10,000
 1991 김주희 \$250

기타

해외의료선교 기금

1961 이은자 \$200,000

현봉학박사 기념 기금

Helen Hyun (Dr. 현봉학 따님)
 \$4,999

Dr. 이영빈 Memorial Fund

1961 홍용성 \$500

졸업 50주년 기념 기금

71년 졸업 동기 기금

강신석
 김시영
 김윤훈
 김은혁
 김진관
 김혜경
 김홍기
 남건우
 박연옥
 박정원
 박태근
 석민수
 안효승
 오세창
 유영우
 윤은주 (Mrs. 윤
 경옥)
 이상준
 이재성
 이현규
 이헌태
 정성수
 정규식
 조대빈
 천용철

최청원

72년 졸업 동기 기금

김대중
 김성철
 김수룡
 김시현
 김용원
 김원동
 김인교
 김진섭
 김태원
 류지선

문관진

백종렬
 설의철
 서상민
 성이현
 소아미(Mrs. 소인영)
 심재문
 안상선
 안홍찬
 오창화
 원재령
 유제우
 윤영주

이규환

이영순
 이철무
 임선형
 장봉명
 전윤택
 정인국
 Mrs. 정헌택
 최영우
 황규실
 이진방

동창회비

2021

1949 정내관
 1953 홍철유
 1954 오상백
 1954 조삼경
 1955 홍준식
 1957 변겸식

1957 오세욱
 1957 정주실
 1958 이동한
 1958 이재석
 1958 최대선
 1959 이창복
 1960 김문현
 1960 김승익
 1960 박제송

1960 변희중
 1960 심낙광
 1960 이동규
 1960 이회영
 1961 강석호
 1961 고영재
 1961 권영배
 1961 김영경
 1962 김영록

1961 박영자
 1961 송성인
 1961 신원식
 1961 오성규
 1961 이영빈
 1961 이용해
 1961 이은자
 1961 지금호
 1962 민장현

1962 백근실
 1962 이상태
 1962 이원재
 1962 전경수
 1962 차진석
 1963 김규환
 1963 김명희
 1963 김영훈
 1963 문재은

1963 박희명	1967 이화무	1971 강신석	1982 김종태	1964 박정호
1963 윤백헌	1967 정정택	1971 김윤훈	1982 김효환	1964 정형률
1963 이규덕	1967 최영인	1971 김은혁	1983 최달	1965 박훈
1963 이재경	1968 고정길	1971 안효승	1984 고봉석	1966 김명호
1964 김영선	1968 김명웅	1971 유영우	1987 박원일	1966 조동욱
1964 김정균	1968 김수자	1971 윤도근	1990 이승태	1967 김덕진
1964 신기덕	1968 김용중	1971 정성수	1991 김주희	1968 고정길
1964 이승호	1968 김홍	1971 천용철	1991 조정현	1968 윤향진
1964 정형률	1968 남광준	1972 김수룡	1998 맹호영	1969 김천수
1964 최선옥	1968 마동명	1972 류지선	2001 김대현	1969 박준만
1965 강행자	1968 박규	1972 설의철	2001 정혜진	1969 연규호
1965 김용서	1968 박동수	1972 성이현	2001 홍지수	1971 한상인
1965 김정규	1968 백강인	1972 소인영	2002 강현석	1972 설이철
1965 박문수	1968 윤태남	1972 안상선	2013 이주섭	1972 안상선
1965 이성환	1968 윤향진	1972 안홍찬	2014 황진영	1972 안홍찬
1965 이충영	1968 전여숙	1972 이진방	2015 배정한	1972 정인국
1965 조신근	1968 조계은	1972 이철무		1973 서정주
1965 허일무	1968 지원흥	1972 정인국		1974 유순혜
1966 김명호	1968 최경희	1972 최영우		1974 허양옥
1966 김택영	1968 최문희	1972 황규실		1976 박용덕
1966 남기일	1968 최홍열	1973 백승현		1979 박훈재
1966 배정현	1968 함지호	1973 서정주		1979 오혜경
1966 서재만	1968 흥승국	1974 김영희		1983 최달
1966 이병윤	1969 김광옥	1974 김유근		1984 고봉석
1966 이종무	1969 김천수	1974 조동식		1991 김주희
1966 이진욱	1969 노명재	1974 허양옥		1991 조정현
1966 장덕규	1969 박종관	1975 한승수		2000 안선영
1966 조동욱	1969 박준만	1976 김계영		2014 황진영
1966 최무길	1969 박창조	1976 박용덕		2015 배정한
1967 김덕진	1969 이원규	1976 이준호		
1967 김태원	1970 김경식	1979 박훈재		
1967 박기정	1970 김영숙	1979 오혜경		
1967 박용건	1970 김장수	1979 이문희		
1967 방계현	1970 오흥길	1979 정광호		
1967 유영제	1970 유득기	1982 고종현		
1967 이석완	1970 한상인	1982 김상애		

2022

1949 안경진	1962 이상태
1953 홍철유	1962 전경수
1954 오상백	1962 허정
1954 조삼경	1963 김규환
1956 서상현	1963 박희명
1956 서영수	1964 김순복
1960 심낙광	
1961 김영경	
1961 지금호	

2021 이사회비

1953 홍철유	\$200
1955 홍준식	\$200
1961 고영재	\$200
1061 이용해	\$200
1963 김규환	\$200
1969 김천수	\$200
1969 박창조	\$200
1970 유득기	\$200
1970 한상인	\$200
1971 강신석	\$200
1972 소인영	\$200
1976 박용덕	\$200
1966 조동욱	\$200
1969 김천수	\$200

2022 이사회비

1953 홍철유	\$200
1966 조동욱	\$200
1969 김천수	\$200
1979 박훈재	\$200

2021 동창회 기부금

1949 정내관	\$310
1953 홍철유	\$250
1954 오상백	\$100
1954 서영심 (Mrs. 서세모)	\$5,000
1957 변겸식	\$200
1957 정주실	\$1,000
1958 최대선	\$300
1960 변희중	\$100

1960 이영환	\$1,000
1961 권영배	\$100
1962 전경수	\$100
1963 문재은	\$150
1965 강행자	\$200
1966 서재만	\$1,000
1967 김덕진	\$600
1967 정정택	\$50
1969 김광옥	\$100
1970 김영숙	\$500
1970 유득기	\$510
1970 한상인	\$500
1971 강신석	\$500
1971 김시언	\$1,000
1972 성이현	\$150
1972 소인영	\$500
1972 윤은주 (Mrs. 윤경옥)	\$500

1972 이철무	\$1,000
----------	---------

2022 동창회 기부금

1953 홍철유	\$400
1954 오상백	\$50
1954 조삼경	\$500
1960 김정희	\$1,000
1971 한상인	\$500
1973 서정주	\$200
1979 박훈재	\$610

2021 미주 동창회 정신과 기금

1970 김영숙	\$1,000
----------	---------



REGISTRATION FORM

The 32nd SAA Annual Scientific Meeting and Reunion

November 3 - November 6 at the Royal Sonesta Houston Galleria, Texas

Name: (Korean) _____ (English) _____ Year of Graduation: _____

Mailing Address (If changed): _____

Telephone: (Home) _____ (Cell Phone) _____

E-mail Address: _____

Spouse or Accompanying Guest

Name: (Korean) _____ (English) _____

Registration Fee: \$200.00 \$ _____

\$100.00 (Over 75 Years Old, Members in Korea & in Training) \$ _____

* **Retire**하셔서 **registration fee**에 대한 **tax deduction** 받지 못하는 분들은 이를 학회 **donation**으로 간주하여 **deduction**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Banquet Fee: \$130 (Saturday, November 5) x () = \$ _____

Golf & Tour 안내

• **Golf** (Green fee, 점심포함)

11월 4일 (금): Hermann Park Golf Course \$120.00 x () = \$ _____

11월 5일 (토): Sharpstown Golf Course \$120.00 x () = \$ _____

• **Tour** (입장료, 버스, 점심포함)

11월 4일 (금): Houston City Tour \$100.00 x () = \$ _____

11월 5일 (토): Museum \$100.00 x () = \$ _____

Donation (Tax Deductible) \$ _____

Annual Membership Dues (All SAA Members) **\$ 150**

Total Amount \$ _____

호텔 예약 안내

Royal Sonesta Houston Galleria, Texas(2222 West Loop South, Houston, TX 77027 Phone: 855-463-3091)

Group Code: **110222YCMAA**

Group Name: **"Yonsei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2022"**

Special Group Rate: **\$149/per night**

예약 전화: **855-463-3091**

온라인예약: 아래의 링크를 이용해서 예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ook.passkey.com/e/50329673>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SAA, INC.**

Mail to: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26 Wimbledon Dr. Roslyn, NY 11576 | 516.655.0088 / E-mail: severanceusa1@gmail.com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송금시 (Payment)

은행이름: Bank of Hope 은행 전화번호: 718-888-0020

은행주소: Flushing-Crocheron Branch

Account No.: **82109186** (Checking Account) / 은행 Routing Number: **122041235**

송금 받는이 이름: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Inc. (전화번호: 516-655-0088)

동창회 운영비

2021

1953	홍철유	\$650
1959	이창복	\$250
1960	변희중	\$100
1961	고영재	\$150
1961	이용해	\$200
1963	박희명	\$500
1964	이봉식	\$1,000
1965	박문수	\$850
1965	허일무	\$100
1966	배정현	\$200
1966	이병운	\$200
1966	장덕규	\$150
1967	이석완	\$100
1967	박용건	\$850
1968	고정길	\$200
1968	김명웅	\$850
1968	김수자	\$100
1968	김용중	\$50

1968	김홍	\$100
1968	남광준	\$350
1968	박규	\$850
1968	백강인	\$1,000
1968	윤항진	\$1,000
1968	이함녕	\$1,000
1968	전여숙	\$500
1968	지원흠	\$150
1968	최경희	\$2,000
1968	최문희	\$100
1968	최홍열	\$500
1968	함지호	\$350
1968	홍승국	\$1,000
1969	박창조	\$500
1970	유득기	\$500
1970	한상인	\$150
1972	김수룡	\$500
1972	소인영	\$150
1972	정인국	\$100

1972	최영우	\$50
1973	서정주	\$100
1974	김영희	\$500
1974	허양옥	\$3,000
1976	박용덕	\$200
1979	박훈재	\$500
1998	맹호영	\$100
2001	김대현	\$500
2002	강현석	\$50

2022

1960	심낙광	\$500
1963	박희명	\$300
1964	박정호	\$100
1965	김정규	\$150
1968	윤항진	\$1,000
1972	설이철	\$350
1973	서정주	\$200

2022년 미주 동창회비 납부서

Name(Korean):	(English)	Year of Graduation:	
Address (if Changed):		Annual Mem. Dues (All SAA Members to Pay)	\$150.00
		이사회비	\$200.00
Phone:(Home)	(Cell Phone)	Greater NY Area Members Dues	\$40.00
E-mail:		동창회 운영비	
		기부금	
		TOTAL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SAA, INC.**

Mail to: **Severance Alumni Association**

26Wimbledon Dr. Roslyn, NY 11576 | 516.655.0088 / E-mail: severanceusa1@gmail.com